

옛것 살리며 새것 짓는 '교훈'



가람의 장면들

통도사 종로전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건축학)



새 건물이 옛 건물들 가리지 않도록 설계된 통도사 종로전. 옛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한국건축의 소중하면서도 겸손한 윤리가 숨어있다.

불 보살살이며 동시에 현존 최대의 사찰인 통도사 가람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일주문이 있는 입구 쪽부터 말하자면, 우선 영산전 약사전 극락전으로 이루어진 하로전(下階院) 지역이 나타난다. 그 다음 일주문을 지나면, 대광명전 용화전 관음전이 일렬로 서있는 중로전(中階院) 지역이 있고, 최종적으로 대웅전과 금강계단으로 이루어진 상로전(上階院) 지역이 있다.

노전(樓殿)이란 사찰의 중요한 불전을 관리하는 노전살이 기거하는 곳으로, 통도사에 상중하 3개의 노전이 있다는 것은 3개의 가람이 합쳐진 복합 사찰이라는 의미도 된다. 그 만큼 통도사 가람은 거대하고 복잡해서, 통도사 건축을 제대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한국 사찰건축의 비밀을 밝힐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은 바로 종로전 지역이다.

우선 3동의 커다란 건물들이 일렬로 서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보통 이런 규모의 불전들이면 하로전의 세 불전들과 같이 서로 작각되게 놓여 있는 가운데 마당을 형성하면서 가람을 이루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앞 뒤 일렬로 놓이다 보니 전각과 전각 사이에는 넓은 마당이 없고, 각 건물로 들어가려면 앞 건물의 옆면을 돌아 들어가야 하는 어색함이 있다. 또한 용화전 앞에는 밥고깃과 같이 생긴 이상한 탑이 서 있어서 궁극증을 더한다.

종로전 제일 뒤쪽에 있는 대광명전은 비로자나불을 봉안한 대웅전 앞의 불전이다. 그 앞의 용화전은 미륵불을 모신 불전이고, 가장

앞의 관음전은 명칭 그대로 관세음보살을 모신 전각이다. 용화전 앞에 서있는 사발 모양의 탑은 일명 봉발탑(奉鉢塔)이라고도 불린다. 바리데를 바치고 있는 탑이란 뜻이다. 이런 모양의 탑은 유일무이한 것으로 이름부터 호기심을 돋운다.

미륵은 인도에서 활동했던 실존 인물로 전한다. 미륵이 죽자 사람들은 그가 보살이 되어 도솔천에 올라갔다고 믿기 시작했다. 미륵보살은 도솔천에서 지상의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명상에 잠겨있다. 이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한 것이 유명한 '미륵보살 반가사

천년에 걸쳐 나란히 선 건물 3동 가리지 않게 배열한 질서 돋보여

미륵불 기다리는 가섭 봉발 눈길

유상'이다. 미륵보살은 도솔천에 오르지 56억 7천만년 후에 다시 지상에 내려와 세 번의 설법을 베풀어 지상의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게 되어있다. 지상에 내려온 미륵은 이미 부처의 신분이 되며, 3번의 설법은 용화사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용화상회라 이름한다. 미륵불의 세계는 당연히 용화세계이며, 용화전은 용화세계를 재현한 불전이다.

미륵불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유일한 미래불이며,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구원의 메시이다. 그러나 존재가 있다. 먼 훗날 미륵불이 하강한다고 해도 무지한 중생들이 그를 미륵불로 믿어줄 것인가? 무언가 징표가 필요했다. 그래서 석

가모니 부처님은 수제자인 가섭에게 자신의 바리데와 가사를 주면서 일었다.

"가섭아, 너는 열반에 들지 말고 내 발우와 가사를 간직하고 있어라. 훗날 미륵불이 하강하여 용화세계를 열 때 발우와 가사를 바치라."

누구보다 먼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섭에게는 섭섭한 일이지만, 미륵불을 증거하기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가섭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당부대로 지금도 계곡에서 바리데를 들고 서서 미륵불이 하강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통도사의 용화전과 봉발탑은 가섭이 미륵에게 바리데를 바치는 바로 그 용화

세계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입체적이고 건축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종로전의 세 건물은 동시에 지어진 것이 아니다. 대광명전은 신라시대, 용화전과 봉발탑은 고려시대, 그리고 관음전은 가장 나중인 조선 후기에 건축했다. 종로전 앞대가 완성되기까지는 천년이 넘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건축적 질서가 숨어있다.

가장 먼저 자리잡은 대광명전은 가장 크고 높다. 용화전은 그보다 약간 작고 낮게 건축했다. 먼저 세워진 뒤쪽의 대광명전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배려한 것이다. 가장 나중에 세워진 관음전은 아예 3칸으로 칸수도 줄이고 지붕도 제일 낮게 만들었다. 세 건물은 비록 앞뒤로 나란히 서 있지만, 새건물이 옛건물을 가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건축했다. 관음전 앞에 서 보면 3동의 불전들이 이루는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결코 옛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정신. 이것이야말로 한국건축의 위대한 윤리요, 현대가 받아들여야 할 소중한 교훈이다. 또한 이처럼 용화세계는 질서정연하고 겸손한 세계다.

현대불교 99년 기획 | 돌부처를 찾습니다

얼굴·몸집 크나 팔은 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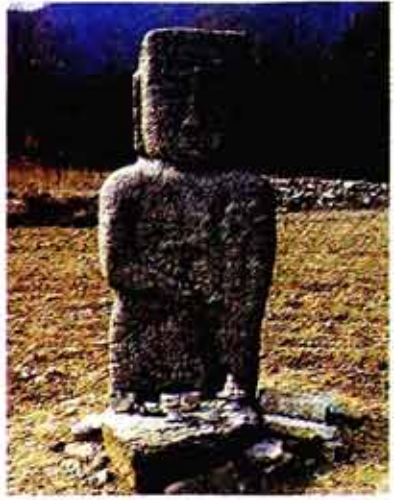
진천 사곡리 미륵불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공굴에는 인삼밭이 빼어나다. 사할터를 감싸고 있는 상산(尙山)은 영험하여 진천은 이 산의 이름을 따서 '상산'으로 불리기도 했다.

산허리에 올라 저녁노을과 함께 떨어는 구름을 바라보는 절경을 상산모운(尙山暮雲)이라고 하는만큼 산화가 절경이다.

민가와 한창 떨어져 있는 인삼밭 한가운데에 있는 미륵불은 현재도 마을사람들이 지상을 드리고 있다. 얼핏보면 묘소앞에 세우는 석상과도 비슷한 미륵불은 등부에 있는 꽃매들이 유난히 눈에 띈다.



공굴의 밭 한가운데 있는 미륵불.

둔부의 꽃 매듭 특이 가슴 균열 파손 우려

백호와 삼도가 드러나고 있으며 팔은 큰 몸체에 비해 유난히 왜소하게 조각돼 있고 다리부터는 땅속에 묻혀있다.

30cm관석에 조각된 미륵불은 높이가 2m이며 폭은 85cm이다. 흉폭은 42cm, 두고 67cm, 얼굴폭 50cm, 코 26cm이다. 특히 귀는 40cm로 밑으로 늘어 어깨와 붙었다. 미륵불은 주변암석의 주류를 이루는 단단한 화강암으로 조성됐지만 가슴부터 굽이 가고 있어 파손이 우려된다.

석불문화연구회 서현 답사부장은 "불상형식이 특이하여 고려시대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변에 통일신라후기의 마애여래입상(충북유형문화재 제124호)과 석굴이 위치하고 있는 것

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애여래입상은 높이 80cm의 대형 마애불로 석굴입구에 내민 입벽을 이용하여 거신광(擧身光)을 표현한 뒤 여래입상을 양각했다. 비만형의 얼굴에 두귀는 길어서 어깨에 닿았다. 거대한 규모에 비해 조각기법이 뒤떨어진 것으로 보아 미륵불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두귀가 크게 조성돼 있고 두손은 흉앞에서 들어 인지와 중지를 맞댄 채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고 있는 아미타구름인을 연상하게 하는 것도 미륵불과 동일한 조각수법이다.

특히 공굴은 중국 원나라때 쿠빌라이의 비(妃)인 오씨가 태어난 곳으로 고려에 있는 부묘에게 공굴을 지어주었다는 얘기가 전하는 곳이다.

정리=김원우 기자(wkim@buddhapia.com)

정영호박사 감정

■중기사 비로자나불

통일신라 하대 조성 전각 지어 불안해야



특히 수인이 정상적인 지견인을 결하고 있으며 무릎까지 덮힌 법의도 유려하기 짝이 없는 전통적인 신라형식을 따르고 있다. 머리가 나발

이 고 상화가 동안(童眼)이다.

이 정도의 불상이면 대좌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중기사는 옛날 대형사찰이 자리잡았던 사지로 추정된다. 그런만큼 사할터를 대적으로 발굴하여 복원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한국고원대 박물관장)

깨끗한 지평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불교조각원

서울사무소: (02)738-8447-8
대전사무소: (042)483-8466

인터뷰 |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계)와 감시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봉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양침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 (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 (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송(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잠속에서 피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해명 합장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계)와 감시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따미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 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백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르몬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수머리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통하던 모친과 어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할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글로써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백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동진청 세계 최초로 세이비지는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한 약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물질을 대량추출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655-2227
(011)808-8880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통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술선식(松仙食)」, 「술효소정액(松醇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람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